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

강문희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The mediating effect of task value between grit and academic stress on nursing students

Moon-Hee Kang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o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모바일 구글(Google)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3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총 192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51, p < .001$), 과제가치와는 정적 상관관계($r = .38, p < .001$)였으며, 과제가치와 학업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r = .67, p < .001$)였다. 과제가치는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Z = -4.92, p < .001$).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그릿과 과제가치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그릿, 학업스트레스, 과제가치, 간호,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task val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mobile Google questionnaire from August 31, to September 9, 2021, and the subjects were a total of 192 nursing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0.0 program. The gri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task value, and task value and academic stress had positive correlation. Task valu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between grit and academic stress. Thus intervention program that considers the task value along with the grit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alleviate the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Grit, Academic stress, Task value,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업, 외로움, 취업, 삶의 목표, 사회적 압박 등과 관련되며[1],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업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 학업스트레스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적응적 자원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학업 관련 요구들의 산물로서[3]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심, 우울, 초조함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통칭한다[4]. 이는 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위협하면서 학업성취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다양한 장애를 초래한다[5,6].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을 높이고[7], 대학생활 적응력과 자기효능감은 낮추며[8], 학업 지연행동을 유발시키면서[9]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11].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학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취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그것이 대두되고 있다[12].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되며, 꾸준한 노력과 관심의 지속성으로 구성된다[13]. 꾸준한 노력이란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실패나 좌절,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며, 관심의 지속성이란 목표와 관심을 쉽게 또는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다[13, 14]. 그것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 목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내·외적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14]. 이러한 결과로 그것은 성공적인 학습이나 수행의 핵심 요소로 논의되고[14,15],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에서 예측력을 보이면서 중요성과 긍정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3]. 또한 그것은 스트레스와도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그것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지만 그것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16].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그것은 긍정·부정 정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더불어 그것은 학습 성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18] 학업이나 과제에 대한 지속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19], 과제 지속성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20]. 그것은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고[17] 또한, 학습현장에서 그것은 교수-학습과정에서 과제수행

에 대한 좌절감이 생기더라도 이를 지속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을 제공한다는 점을[13,21] 고려할 때 그것은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과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제와 관련해 학습자들은 주어진 과제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흥미 있다고 느낄 때,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22]. 학습자가 학습과제나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그 활동이 중요하며 유용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과제가치로[23] 학습자가 인식하는 과제가치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학습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24]. 선행연구에서 과제가치는 웹기반 학습에서 학습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25], 사이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제가치는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의 영향 요인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므로 학습자의 과제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6]. 이에 과제가치는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그것과 과제가치는 학업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선행연구들은 그것과 스트레스[17], 과제가치와 스트레스[26], 그것과 과제가치[27] 사이의 관계만을 분석하고 있어 그것, 과제가치, 학업스트레스가 어떤 구조적 관계 속에서 학업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시 겪는 낮은 환경 적응과 간호수행 스트레스[28], 과도한 학업 등 타전공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29].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것, 과제가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그것과 학업스트레스 사이에서 과제가치가 이들을 매개하는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학업성취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것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것, 과제가치,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그릿, 과제가치, 학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 Y시, K군에 위치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95, 예측요인 8개일 때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60명이었다. 본 설문에 응답자는 193명이었으며, 이 중 대답이 불충분한 1부를 제외한 192부를 분석에 사용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모바일 구글(Google)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구글 웹사이트 주소(URL)를 통해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구글(Google) 설문지 도입 부분에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및 비밀 보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외에는 볼 수 없으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

Duckworth과 Quinn[30]이 개발하고 임효진[31]이 타당도를 분석한 그릿-S(Grit-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흥미유지, 노력지속 2영역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중 흥미유지 문항은 모두 부정 문항으로 역환산하여 산출하였다. Duckworth과 Quinn[30]의 연구에서 그릿의 Cronbach's α 는 .73~.83이었으며, 임효진[31]의 연구에서 그릿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그릿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2.3.2 학업스트레스

Schaufeli 등[32]에 의해 개발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Shin 등[33]이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MBI-SS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적 고갈, 냉소성, 무능력감 3영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chaufeli 등[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스페인의 경우 정서적 고갈 .74, 냉소성 .79, 무능력감 .76이었고, 포르투갈의 경우 정서적 고갈 .79, 냉소성 .82, 무능력감 .69이었고, 네덜란드의 경우 정서적 고갈 .80, 냉소성 .86, 무능력감 .67이었으며, Shin 등[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정서적 고갈 .86, 냉소성 .82, 무능력감 .82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정서적 고갈 .86, 냉소성 .84, 무능력감 .82이었으며, 전체는 .88이었다.

2.3.3 과제가치

Eccles, Adler와 Meece[34]가 과제가치 분석을 위해 사용한 도구를 김경연[3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중요성, 흥미, 유용성 3영역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ccles, Adler와 Meece[34]의 연구에서 과제가치의 Cronbach's α 는 .72~.83이었으며, 김경연[35]의 연구에서 과제가치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과제가치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릿, 학업스트레스, 과제가

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그릿, 학업스트레스, 과제가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Baron과 Kenny[3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34명(17.7%), 여자 159명(82.3%)이었고, 학년은 2학년 129명(67.2%), 4학년 63명(32.8%)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99명(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 50명(26.0%), '매우 만족한다' 41명(21.4%), '매우 불만족한다' 2명(1.0%)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학년($t=-2.36, p=.020$)과 전공만족도($F= 35.3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은 4학년이 2학년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Table 1).

3.2 그릿, 학업스트레스, 과제가치 정도

대상자의 그릿은 1점~5점까지 범위에서 전체 평균은 3.27 ± 0.59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노력지속이 3.55 ± 0.70 점으로 더 높았으며, 흥미유지는 2.99 ± 0.67 이었다. 학업스트레스는 1점~5점까지 범위에서 전체 평균은 2.67 ± 0.55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정서적 고갈이 3.28 ± 0.77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능력감 2.50 ± 0.59 점, 냉소성 2.16 ± 0.79 점 순이었다. 과제가치는 1점~5점까지 범위에서 전체 평균은 3.65 ± 0.58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과제의 중요성이 3.97 ± 0.74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용성 3.65 ± 0.69 점, 흥미 3.32 ± 0.74 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grit, academic stress and task value (N=192)

Variables	Mean±SD	Reference range
Grit	3.27(±0.59)	1.00-5.00
Consistency of interest	2.99(±0.67)	1.00-5.00
Persistence of effort	3.55(±0.70)	1.00-5.00
Academic stress	2.67(±0.55)	1.20-4.20
Emotional exhaustion	3.28(±0.77)	1.00-5.00
Cynicism	2.16(±0.79)	1.00-5.00
InEfficacy	2.50(±0.59)	1.00-4.00
Task value	3.65(±0.59)	1.50-5.00
Utility	3.65(±0.69)	1.00-5.00
Importance	3.97(±0.74)	2.00-5.00
interest	3.32(±0.74)	1.00-5.00

3.3 그릿, 학업스트레스, 과제가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r=-.51, p<.001$), 과제가치와 정적 상관관계($r=.38, p<.001$)가 있었으며, 과제가치와 학업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r=-.67, p<.001$)가 있었다(Table 3).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cademic stress	
			Mean±SD	t/F(p)
Gender	Male	34 (17.7%)	2.53±0.62	-1.63(.105)
	Female	158 (82.3%)	2.70±0.53	
Grade	2 nd	129 (67.2%)	2.61±0.58	-2.36(.020)
	4th	63 (32.8%)	2.80±0.46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ied ^a	41 (21.4%)	2.27±0.50	35.30(.001) a,b,c<d
	satisfied ^b	99 (51.6%)	2.59±0.44	
	moderate ^c	50 (26.0%)	3.10±0.41	
	very unsatisfied ^d	2 (1.0%)	4.06±0.19	

Table 3. Correlation among grit, academic stress and task value (N=192)

Variables	Grit r(p)	Academic stress r(p)	Task value r(p)
Grit	1		
Academic stress	-.51(<.001)	1	
Task value	.38(<.001)	-.67(<.001)	1

3.4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88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성이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는 0.86으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7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36]의 3단계 검증절차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그릿은 매개변수인 과제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그릿은 종속변수인 학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1, p<.001$). 3단계에서 그릿과 과제가치를 독립변수로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과제가치는 종속변수인 학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6, p<.001$). 회귀계수 비교결과 독립변수인 그릿은 종속변수인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3단계($\beta=-.30, p<.001$)가 2단계($\beta=-.51, p<.001$)보다 감소하여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1단계에서 14.2%의 설명력, 2단계에서 25.6%의 설명력, 3단계에서는 52.4%의 설명력을 보였다. 매개효

과 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Z=-4.9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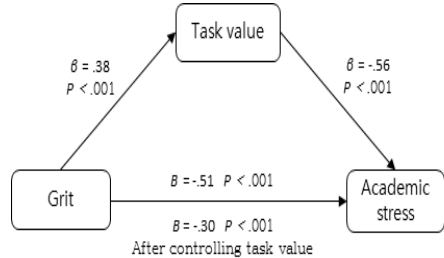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s of task value between grit and academic stres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스트레스, 과제가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67점으로 중간 정도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측정한 3.03점[37], 일반대학생을 측정한 2.79점[38], 2.96점[39]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의 영향 요인 연구에서 그릿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전공만족도이며, 그릿과 학업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로 그릿이 높으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는데[40], 본 연구 대상자의 99%가 전공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그릿 점수가 5점 만점에 3.27점으로 중간 이상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높은 전공만족감은 그릿을 높이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task value between grit and academic stress

(N=192)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p)	Adj. R ²	F(p)
Step 1.	Grit	Task value	.38	.068	.38	5.62 (<.001)	.142	31.56 (<.001)
Step 2.	Grit	Academic stress	-.47	.058	-.51	-8.09 (<.001)	.256	65.40 (<.001)
Step 3.	Grit	Academic stress	-.28	.051	-.30	-5.44 (<.001)	.524	104.12(<.001)
	Task value		-.52	.050	-.56	-10.32 (<.001)		
Sobel test		Z(p) : -4.92 (p<.001)						

는데 기여하고, 이는 다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타대학생들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서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결과[37,40]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 이루어지고 이후 이를 통해 그것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 과제가치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부적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40,41]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삶의 질 연구에서 그릿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으며, 그릿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17]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 방안으로 그릿을 강화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릿과 과제가치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과제가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결과[27]와 일치하는 것이며, 그릿이 높을수록 과제가치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과제가치의 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27]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과제지속성과 정적 상관관계로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그릿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보고[20]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높은 그릿은 과제가치의 의미 부여를 통한 과제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도 낮추는 것으로 학습 환경에서 성공적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그릿을 증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과제가치는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이러닝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제가치가 스트레스,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과제가치는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로 학습자가 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흥미성을 지각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정서적 고갈과 냉담한 반응이 줄어들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결과[26]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성취도사이에서 과제가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10]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과제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을수록 학습을 유익한 것으로

로 판단하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므로 교수자는 과제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가치 있는 과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Z=-4.9, p<.001$), 이들 변수가 학업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2.4%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동일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그릿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과제의 집중 등을 매개로 학습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기조절을 증진시킨다는 것[42]을 지지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즉 그릿은 과제가치를 매개로 자기조절을 증진시켜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릿은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개인적 특성으로[43] 그릿이 높은 사람은 과제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지고 성취 목표 강화로 연결되면서 학업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웹기반 학습의 성과 연구에서 과제가치는 과제실제성과 학습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이 과제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지하여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서 학습에 대한 몰입이 용이해지고 학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44]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과제가치는 학습몰입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면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이는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나아가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교수자가 과제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탐색하고 실천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공만족도가 그릿의 영향 요인임[45]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과제가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 설계 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제는 어떠한 것이며, 유용하다고 느끼는 과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학습자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검토한 후 학습내용의 중요성과 유용성이 고려된 잘 설계된 가치 있는 과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한다면, 과제 몰입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그릿과 과제가치를 학업스트레스

를 완화하는 핵심변인으로 상정하여 그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릿이 학업스트레스를 예측할 때 과제가치는 학습자의 동기를 높여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현장에서 교수-학습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변인으로 과제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그릿과 과제가치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그릿과 과제가치 두 변인을 강화시키는 전략 마련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일부지역 간호대학교의 2학년,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간호대학생의 그릿, 과제가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 과제가치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과제가치와 학업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릿과 학업스트레스 사이에서 과제가치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54.2%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의미 있고 유용성 있는 가치 있는 과제가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 완화에 과제가치의 설명력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수-학습 설계 시 과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고려한 수업설계 및 운영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일부 학년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학년을 포함한 표본 선정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 A. Karaman, E. Lerma, J. C. Vela & J. C. Watson. (2019). Predictors of Academic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22* (1), 41-55. DOI : 10.1002/jocc.12113
- [2] M. J. Ko & B. Y. Choi.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6), 81-104. DOI : 10.21509/KJYS.2017.06.24.6.81
- [3] S. E. Wilks. (2008). Resilience amid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impact of social support among social work students. *Advances in Social Work, 9*(2), 106-125. DOI : 10.1080/02615470902912243
- [4] B. G. Bak & S. M. Park.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2), 563-585.
- [5] R. Misra & L. G. Castillo. (2004). Academic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Comparison of Americ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1*(2), 132-148. DOI:10.1037/1072-5245.11.2.132
- [6] J. C. Watson & A. A. Watson. (2016). Coping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among Hispanic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9*(3), 218-230. DOI : 10.1002/jocc.12045
- [7] S. H. Shin. (2016).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1), 14-24. DOI : 10.5977/jkasne.2016.22.1.14
- [8] S. J. Lee & J. H. Yu. (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3), 589-607.
- [9] H. J. Park & D. H. Ahn.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gulation, Time Management,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867-891. DOI : 10.22251/jlcci.2018.18.22.867
- [10] Y. J. Joo, J. W. Lee & S. Y. Cho. (2012).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Value

-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8(1), 73-92.
DOI : 10.26857/JLLS.2012.04.8.1.73
- [11] Y. S. Kim. (2018). Academic stress, Daytime sleepiness, Depression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867-883.
DOI : 10.35873/ajmahs.2018.8.5.082
- [12] J. E. Kim, S. R. Lee & S. J. Yang. (2018).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Grit: Examining Multidimensional Clustering of Grit.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24(2), 131-151.
DOI : 10.20406/kjcs.2018.5.24.2.131
- [13]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 [14] A. L. Duckworth & J. J. Gross.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DOI : 10.1177/0963721414541462
- [15] Y. R. Yoo, J. W. You & H. K. Park. (2015). A Relationship among Grit, Objective Reaso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Efficacy of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367-385.
- [16] D. V. Blalock, K. C. Young & E. M. Kleiman. (2015). Stability amidst turmoil: Grit buffers the effects of negative life events on suicidal ideation. *Psychiatry Research*, 228(3), 781-784.
DOI : 10.1016/j.psychres.2015.04.041
- [17] D. H. Kwon. (2018). Relationships among High School Teachers' Posi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s, Grit,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4(3), 209-228.
DOI : 10.14333/KJTE.2018.34.3.209
- [18] H. J. Lim, M. H. Hwang & H. C. Choi. (2021). A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Grit and Learning Time. *Asian Journal of Education*, 22(3), 537-566.
DOI : 10.15753/aje.2021.09.22.3.537
- [19] B. J. Kim, J. H. Lee & S. M. Jeon. (2019). Relationships among Exercise Passion, Grit, and Exercise Adherence of Middle-school Sport Club Participa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78, 373-384.
DOI : 10.51979/KSSLS.2019.10.78.373.
- [20] H. S. Cho, K. J. Lee & S. LI.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Perception of Expectance-Value, Grit and Task Persistence of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9(3), 731-743.
DOI : 10.35159/kjss.2020.06.29.3.731
- [21] H. S. Cho. (2019). The Effects of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Peer Relatedness Support on the Grit and Academic Engagement of Students in PE Classe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8(1), 927-943.
DOI : 10.35159/kjss.2019.02.28.1.927
- [22] A. Wigfield & J. S. Eccles. (1992).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task values: A theoretic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2(3), 265-310.
DOI : 10.1016/0273-2297(92)90011-P
- [23] J. S. Eccles & A. Wigfield. (1995). In the mind of the actor: The structure of adolescents' achievement task values and expectancy-related belief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15-225.
DOI : 10.1177/0146167295213003
- [24] Y. J. Ha. (2010). The effects of learning strategies and task value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online learn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3), 577-598.
- [25] M. H. Kang, B. R. Heo & H. J. Lim. (2012). Identifying a Mediating Effect of Task Value Between Task Authenticity and Learning Outcomes in Web-based Project 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4), 33-55.
- [26] Y. H. Song.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ask value, Stress, Academic Burnout, and Learning Engagement in an e-Learning Cours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1), 105-122.
- [27] H. W. Min.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Conscientiousness, Self-Control, Task Value between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28] Y. J. Jeong & C. K. Koh. (2016).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ping Behavi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4), 296-302.
DOI : 10.17547/kjsr.2016.24.4.
- [29] Y. K. Yang, K. S. Han, M. H. Bae & S. H. Yang. (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1), 23-33.
DOI : 10.17547/kjsr.2014.22.1.23
- [30] A. L. Duckworth & P. D. Quinn.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DOI : 10.1080/00223890802634290
- [31] H. J. Lim.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Grits Factor Structure and its Valid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2), 169-192.
DOI : 10.15753/aje.2017.06.18.2.169
- [32]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 A. B. Bakker.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DOI : 10.1177/0022022102033005003
- [33] H. Shin, A. Puig, J. Lee, J. H. Lee & S. M. Lee. (2011).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4), 633-639.
DOI : 10.1007/s12564-011-9164-y
- [34] J. Eccles, T. Adler & J. L. Meece. (1984). Sex differences in achievement: A test of alternate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1), 26-43.
DOI : 10.1037/0022-3514.46.1.26
- [35] K. E. Kim.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academic self-efficacy, task value, and class eng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36]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37] M. Y. Kim, J. S. Jung & C. Yang. (2020).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Career Identity and Self 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6), 1267-1284.
DOI : 10.22251/jlcci.2020.20.6.1267
- [38] B. H. Kang. (2021). Effects of forest therapy program on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reduction in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Department of Forest Therapy. Masters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39] E. Chang.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6(7), 29-56.
DOI : 10.21509/KJYS.2019.07.26.7.29
- [40] M. R. Jung. & E. Jeong. (2018).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6), 414-423.
DOI : 10.5392/JKCA.2018.18.06.414
- [41] I. S. Lee, M. K. Jeon & M. Y. Lee. (2020). Stres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3), 298-306.
DOI : 10.5953/JMJH.2020.27.3.298
- [42] H. J. Lim, H. S. Ha & M. H. Hwang. (2016). The Relationship among Grit, Self-Efficacy, Achievement Goal, and Academic Self-Regula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7(3), 43-65.
DOI : 10.15854/jes.2016.09.47.3.43
- [43] H. H. Lim & H. I. Cho. (201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Grit Scale for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2(3), 495-523.
DOI : 10.17286/KJEP.2018.32.3.08
- [44] M. H. Kang, B. R. Heo & H. J. Lim. (2012). Identifying a Mediating Effect of Task Value Between Task Authenticity and Learning Outcomes in Web-based Project 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4), 33-55.
- [45] E. Jeong & M. R. Jung. (2018).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09-317.
DOI : 10.14400/JDC.2018.16.9.309

강 문 희(Moon-Hee Kang)

[학위]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7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그릿, 자기주도학습, 학업스

트레스

· E-Mail : sinnakk@naver.com